

KCC, 파키스탄 Dewan과 독점계약

중동·서남아시아 교두보 확보 ... 초기 3년 매출 1900만달러 목표

금강고려화학(대표 김춘기)이 파키스탄에 건축 및 산업자재를 비롯한 KCC 생산 전 제품에 대한 현지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해 서남아시아 진출의 안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했다.

판매계약은 파키스탄 굴지의 드완(DEWAN)그룹과 체결했으며 따라서 드완그룹은 파키스탄에 KCC 전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앞으로 수익성을 고려해 현지 공장설립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키스탄과의 교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CC는 드완그룹이 1999년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CKD(Complete Knock-down) 방식으로 파키스탄에 조립라인을 설치할 때 자동차 도료를 공급하면서 인연을 맺었으며 그동안 공업용 도료, 분체 도료를 비롯한 건축 및 산업자재 일부를 공급해 왔다.

KCC 관계자는 “파키스탄이 서남아시아와 중동지역의 관문으로 앞으로 수출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판매계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CC는 초기 3개년도 매출을 1900만달러로 목표하고 있으며 시장 성장세에 따라 매출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드완그룹은 파키스탄의 민간 기업으로 면방직,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아크릴 섬유, 설탕, 비료, 자동차, 시멘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섬유 분야는 매출규모 세계 10위권이다.

<화학저널 2004/10/05>